

## 이철우, 임종식 손잡고 유보통합 반드시 실현

공동선언문 발표 현장 방문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창구 협업해야할 과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손잡고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 실현 결의를 다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임 교육감은 5일 예전 국공립행복주택 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 방문하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사와 임 교육감은 현장방문에서 교·보육 수업



경주시, 행복 넘치는 아동친화도시 건설 지난해 10월 제1회 경주시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개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제공 관련기사 5면)

현황을 직접 점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토론, 저출생극복TF 출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모

두 투입, 지방이 주도하는 체험형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 대구시, 소외계층 보듬는 따뜻한 설맞이 분주...

공공·민간자원 연계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대구시가 설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소외계층은 보듬고 시민의 불편함은 없는 따뜻한 설맞이를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120달구벌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가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설맞이 준비**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상황반을 연휴 기간(2월9-12일) 편성·운영한다.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저소득층 주민, 홀몸노인, 노숙인, 쪽방 생활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지원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1만1700여 명)에게 5억 8000여만 원의 위문금·위문품을 지원한다. DGB사회공헌재단 및 한국부동산원은 각각 저소득 소외계층(1800명)에게 은누리상품권 9000만 원과 1억 8000여만 원의 백미를 전국 사회복지시설(200여 곳)에 지원한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DGB사회공헌재단, 이마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51개소)에 떡국

떡 1000박스(1000만 원)를 지원하는 등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홀몸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 방지를 위해 경로 무료급식소(6곳)와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서 급식 및 도시락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2800여 명)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및 홀몸노인(3만,000여 명)의 안부 확인도 한다.

**■120달구벌콜센터 정상 운영** 설 연휴 120달구벌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120달구벌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화(국번없이 120), 보이는 ARS 문자(053-120) 및 온라인(두드림소)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20달구벌콜센터는 시장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대구시 대표 민원 소통 창구로, 연휴 기간 맞춤형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자료 준비 및 상담원 교육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콜센터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긴급상황 및 시스템 장애에 신속 대응한다. 대구 어디서나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면 약국, 병의원 정보와 버스 정보, 무료 주차장 등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 설 연휴 기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재훈 대구시 행정국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했다.

### 경수한수원FC 선수 대거 영입 본격 출격

윤병권, 장지성, 이병욱 등  
K3리그 강력한 수비구축



경수한수원FC(이하 경수)가 선수들을 대거 영입 본격 출격에 나섰다. 경수는 수비수인 이재윤(FC목포), 이유찬(김해FC), 이병욱(김해FC), 이기운(거제시민), 윤상은(한남대), 이준석(인천대)을 영입했다. 영입으로 지난해 좋은 활약을 펼쳤던 윤병권, 장지성 등과 함께 K3리그에서 강력한 수비를 구축하게 됐다. FC목포 출신의 이재윤은 2019년 울산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 2022년부터 FC목포에서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다. 스피드를 이용, 수비 커버 능력이 우수하고 대인방어 빌드업 능력이 좋은 선수이다. 이유찬은 2018년 FC목포의 전신인 목포시청

축구단에서 성인 무대를 시작한 K3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로 사이드 수비수로 위치선정이 타월하다. 패스 능력과 크로스가 우수, 세트피스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선수이다. 이병욱 2018년 서울 이랜드 입단 지난해 김해FC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공중 볼 장악 능력이 좋고 수비시 몸싸움이 가능해 후반 빌드업을 통한 경기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 2023년 거제시민에서 활약한 이기운은 2019년 울산 현대에 입단했다. 2021년 울산시민축구단을 군복무를 위해 2022년 거제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 큰 키를 활용한 헤딩과 볼배급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공격수로도 활약한 경험이 있어 최전방과 최후방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이다. 인천대 소속 선수로 유소년 시절 각종 대표팀에 합류만 할만큼 기본기가 좋다. 체력이 좋고 헤딩·수비력이 뛰어나다. 황팔이 능력이 뛰어나 전술 활용도가 높은 선수다. 한남대 출신의 윤상은은 2023년 한남대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U22 선수활용 가치가 높다. 드로잉을 멀리까지 던질 수 있어 전술적 가치가 높다. 경수는 2024시즌을 대비, 창원에서 1차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5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동해 2차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윤용찬 기자



단체장 일정



주낙영 경주시장은 6일 오후 대외협력실에서 열리는 '덕일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6일 오후 상원3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상원3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다.

제1경 | 성주가야산

제2경 | 덕용산성 성주호물레끼

제3경 | 회연서원과 무흘구곡

제4경 | 만귀정과 포천계곡

제5경 | 성밖숲

##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걷고 싶은 성주

가야산부터 성주참외하우스까지 10개의 장관, 그래서 오늘도 성주에 갑니다

제6경 | 세종대왕자태실

제7경 | 한개마을

제8경 | 성주역사테마공원

제9경 | 성산동 고분군

제10경 | 성주참외하우스 들녘

성주는 **즐겁다!**



### 총선 국힘 TK 경쟁률 대구 3.6대1·경북 5.2대1

4·10 총선 TK(대구·경북) 지역구 공천에 국힘 의회 인사들이 대구 44명, 경북 68명 등 총 11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공천 신청

자 명단에 대구는 44명(남자 37명, 여자 7명)이 올라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남구가 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구(7대 1), 동구갑(6대 1) 등의 순

이었다. 반면 탈성은 현직인 추경호 의원 한 명만 신청했다. 추 의원은 단수추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68명(남자 61명, 여자 7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세종(6대 1)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이다.

# 지방시대 저출생과의 전쟁 懲毖 정신 뿐

## 2024 경북지방시대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발표

경북도가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따른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지난 잘못을 경계해 삼가함)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둔다.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K-U시티 플러스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이다.

이 사업에 2조 7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도는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008억 원 투자한다.

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

으로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2024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

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김성용 기자



## 안동시·예천군의회 “선거구 분리 안돼”

### 선거구 획정안 부당성 공동성명서 제출 항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 움직임과 관련,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안동시의회 의원 14명과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 선거구 분리 반대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양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도시가 위치한 예천 호명읍에는 안동시민·예천군민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함께 성장해오고 있다”며 “안동·예천 선거구를 분리하

는 것은 지역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지금까지 안동과 예천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청을 유지하고, 10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이라는 목표로 교통과 생활문화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분리될 수도, 떨어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군민의 염원에도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분리시켜 정치적인 통합을 막는 것은 사·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기의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안동·예천 사·군민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준길 기자

## 대구 14개월 만에 240가구 분양...

### 반고개역 푸르지오 엘리비엔 주변보다 높은분양가 걸림돌

대구에서 14개월 만에 신규아파트가 선보인다.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가 넘는 데도 올해 첫 청약시장의 문이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다.

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1만4848가구, 지방에서 1만3428가구의 신규아파트가 선보인다.

대구에서는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엘리비엔’ 239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 두꺼비 집단 산란지 보호 수성구 로드킬 방지 펜스

수성구가 6일 망월지 두꺼비 보호를 위한 로드킬방지 펜스 설치 작업을 한다.

옥수동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집단 산란지이다.

펜스 설치에는 2·3월 산란을 위해 서식지인 옥수산에서 망월지로 내려오는 성체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도 수성구청 관계자와 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망월지에서 옥수산 등산로 입구까지 300m 구간에 걸쳐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자연보호 계몽운동도 결집한다.

수성구는 지역주민에게 두꺼비 산란지 보호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관 수성구청장은 “두꺼비 산란 기간인 2월부터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5월 말까지 망월지의 수위와 수문 상태를 수시로 확인, 펜스 훼손과 수질오염 행위 등 감시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용 기자

대구에서 50가구 이상 아파트 공급은 2022년 12월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 동대구센트럴(481가구)’ 이후 14개월만이다.

하지만 주변 단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과 2022년 9월(1만3445가구)부터 1년 4개월째 1만 가구를 웃도는 미분양 물량이 걸림돌이다.

이 아파트 84㎡ 기준층의 평균 분양가는 7억3900만원(반고개역 포함)으로 6억 원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된 주변 단지보다 1억 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

만 245가구로 전국 물량(6만 2489가구)의 16.3%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12월 기준 1044가구로 전년(1016가구)보다 28가구 늘어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용 비용 등을 감안해 책정한 분양가이지만 주변 아파트 거래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게 청약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규아파트로 대구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신암2동, 사랑의 장(醬) 담그기 인기

### 우리마을 장독대 행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대구시 동구 신암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전통 장 담그기 ‘우리마을 장독대’ 행사를 가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전통 장 담그는 방법을 계승하고 직접 담근 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장 담그기는 향아리 소독을 시작으로 적정 염도를 맞춘 소금물에 메주를 씻어 넣고 누름대나 무로 고정시킨 후 광목 덮개를 씌워 마무리한다.

낮에는 향아리 뚜껑을 열어두고 밤이나 비가 오는 날은 뚜껑을 덮어준다. 1차 발효과정을 거친 4월경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고, 6월경 2차 발효를 마쳐 완성된 신암2동포 명품 된장, 간장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황천화 신암2동장은 “전통 장 담그기 행사에 동참한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나눔문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com

발행인 김명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인쇄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일일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주시, 설맞이 사적지 환경정비

경주시 사적관리과 직원들이 설을 맞아 대릉원, 침성대, 동궁과 월지 등 주요 사적지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했다. 환경정비에는 직원들을 포함해 사적지 순찰

관리원, 환경미화원 등 40명이 참여했다. 사적지 33개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와 화장지, 손세정제, 방향제 등의 편의용품 비치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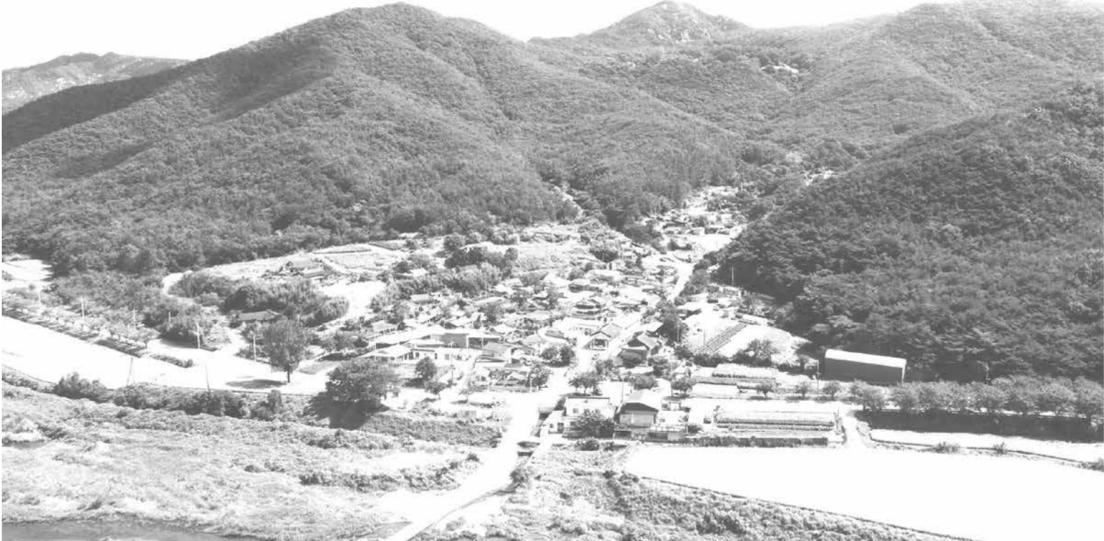
앞서 지난달 29일 사적지 순찰관리원 9명과 환경미화원 23명을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와 사적지 환경정비 기준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사적지 화장실 17개곳에 매주 방역 소독도 하고 있다.

##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9년만에 해제...

### 축구장 59개 합친 37만㎡ 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경주 남산 일대 37만 여㎡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로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946㎡ 터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면적만 축구장(6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지역은 △경주 탐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탐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공공터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

육원 등도 포함했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월1일)로부터 30일 간이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경주 남산 일대는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기관유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문화재구역 해제 지역인 내남면 용장리 탐수골 모습.

### 경주시, 설맞이 대대적 환경정비

#### 23개 읍면동 도로변 시가지 대청소 실시

경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시는 23개 읍면동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주말까지 설맞이 대청소를 했다. 정비는 설 연휴 쓰레기 대책에 따라 지역 내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변, 하천변 및 시가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나들목(IC, JC 전·출입구) 구간 등 그간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차우지 못한 이른바 ‘묵힌 쓰레기’ 수거에 집중했다.

환경정화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종량제봉투 사용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설 연휴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설 당일), 11일(일요일) 양일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비상상황실도 운영한다. 생활쓰레기 적치지역을 상시 파악, 특별기동청소반과 운반차량을 동원, 신속 처리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이슈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주민들과 귀성객 모두 편안하고 깨끗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행복 넘치는 아동친화도시 건설 팔 걷었다

#### 아동·청소년 더욱 건강 행복 성장 하도록 최선

경주시가 올해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홍보를 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와 함께의 무를 활성화 하는 아동수당 지원, 아동권리 골든벨, 아동정책 토론회,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와 아동학대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병행한다. 아동수당은 8세미만(95개월까지) 전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신고 시 통합신

청이 되고 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경우는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10만원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1:2비율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 했다. 예산도 지난해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와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기 적성교육 50여개 과정, 방과후아카데미 4개 반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

원 등을 운영한다.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운영,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진로교육센터 등도 진행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상담과 찾아가는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진로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교육,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진로 상담과 대학입시 컨설팅, 초·중 전환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배경에 아동청소년과장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올해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수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 경주 농산물 우수성 온누리 알려

#### 베트남 현지 유통업체 농·특산물 수출 MOU

경주시가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업체 ‘K-마켓’과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중대 경주시 농업유통과장, 고상구 K-마켓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

물 수출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마켓은 베트남 현지에 1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서비스 등으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료품을 공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다. 시농협원에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시는 베트남 현지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경주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경주시립도서관은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는 △그림책 출판(내가 직접 만드는 그림책) △그림책 지도사 3급 △영어그림책 엄마교실 △DOIT! 독서명문장 캘리그래피 △봄, 시(詩)가 내게로 왔다 등 성인대상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툼툼툼툼 그림책 놀이 △미술이랑 그림책이랑 △NEWBERRY BOOK CLUB(원서 읽기) △도전! 도서관에서 9권 신나게 읽기 △고려, 전쟁 속의 꽃핀 드라마 △

ACTING ENGLISH!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경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로그인 후 독서문화행사, 문화강좌신청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단, 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 부담).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누리집과 시립도서관 사서팀(054-779-8902)로 문의하면 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민간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1일 열린 합동점검은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 방제사업 참여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장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점검은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등 특수지역의

방제사업 문제점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정한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적극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통해 경주시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 목표...

#### 75억 2200만원 ‘투입’ 올 연말까지 공사완료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가 2026년까지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에 나선다. 두 기관은 5일 시청 대의협력실에서 모하, 3리, 남산동-하동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 김준석 서라벌도시가스㈜ 대표, 이동협 시의회 부의장과 지역 이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사업비 75억2200만원(도시 65%, 서라벌 35%)을 들여 올 12월까지 552세대를 대상

으로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한다. 사업규모는 △모하1·3리(공급관 7km) △남산동(본관 2.7km, 공급관 7.1km) △하동(본관 0.1km, 공급관 4.4km) 등 총 21.3km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각종 인허가 지원과 공사 구간 내 파손·누설되는 상하수도 배관 보수를 담당한다.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시공 총괄과 배관 및 접합기 관리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이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분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추진 기간 중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2014년부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총 364억5000만원을 투입, 배관망 136.29km를 구축, 1만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 현재 72%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 안강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인기 짱

#### 신뢰받는 청소년시설 될 수 있게 최선 노력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품앗이는 지난 3일 안강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실에서 새해를 맞아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특별 프로그램 중 떡국 만들기, 새해 달

력 만들기, 새해맞이 예절교육,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의견 가운데 무드등 만들기가 선정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무드등에 2024 버킷리스트를 새겨며 올해를 파이팅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친구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인 회의를 거쳐 기획한 2024년 새해 첫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늘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요리실, 악기연습실, 맨스연습실, 상담실, 대회의실, 유튜브 방송실 등의 실내시설과 풋살구장, 농구장, 공연장 등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다.

#### 설 연휴엔 동궁원 나들이

경주 동궁원이 설날을 맞아 연휴기간(9-12일) 내내 문을 연다. 단 10일은 체험관을 제외한 식물원 본관 및 2관만 운영한다. 동궁원 느티나무 광장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2일(13:30-14:00)까지 신라천년예술단의 대금산조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11-12일) 오전 10-오후 3시까지 는 투호, 한국, 대형웃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제공해 명절 분위기 한껏 끌어올린다. 손장원 동궁원장은 “풍요로운 설날을 맞아 동궁원에서 가족과 함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올진  
영덕 올름

#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경기부양에 업무 집중 지시

## 2월 정례회 통해 축구대회 대개축제 부양책 강조

광열 영덕군수가 지역경제 쟁기에 직접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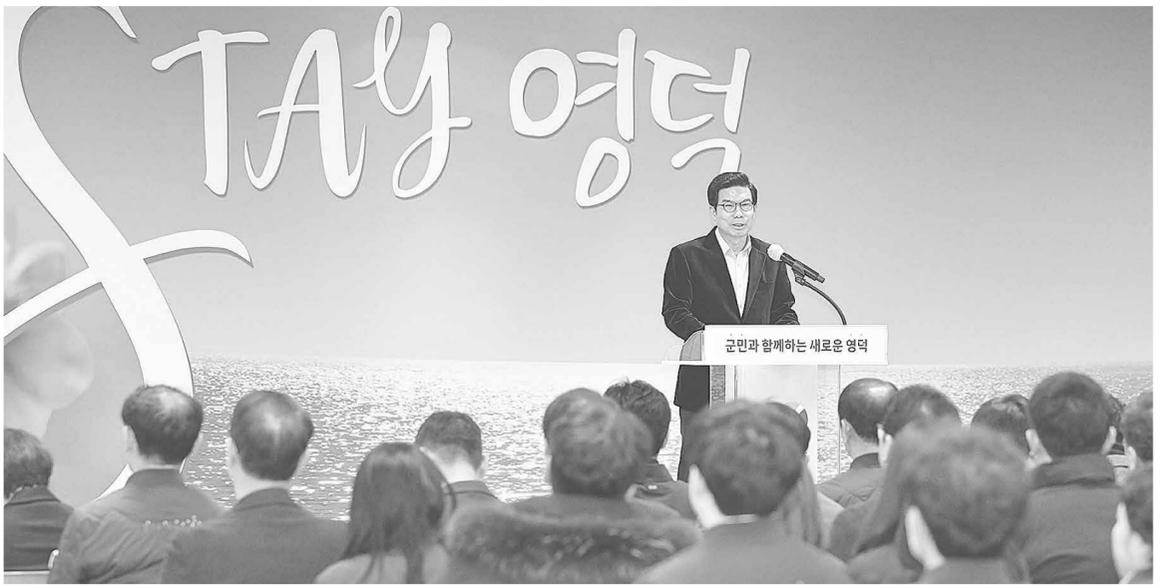
5일 2월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군수는 조직개편과 연초 업무보고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눈코 뜰 새 없이 고된 한 달을 보낸 직원들을 격려하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신속집행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관내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춘계 중등 축구대회'에 110개 팀 4500여 명의 선수단이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회를 끝까지 잘 매조지고 추가적인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경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된 영덕대개축제의 명성을 이어가 전국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대표 특산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탄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고 강조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일이 모두 군민의 삶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하

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서 재가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공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포항시 농업 대전환 밑그림 그린다

### 포항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경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항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농산업

단지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포항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포항시는 포스트, 한동대와 같은 교육기관과 포항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뛰어난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무대인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미드바르와 독자적인 식물공장 시스템을 보유한 제노엔텍이 소재하고 있는 등 스마트팜 관련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적으로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산업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산업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포항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실용화 및 인력육성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적극 알리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래 농업의 대안은 스마트 농업이고 관련 농산업의 성장세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항형 스마트팜 실증지원센터가 지역의 미래 농산업의 초석이 되고 농업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 설날에는 우리 모두 올진군민...

울진군 왕피천공원에서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특별한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연휴 동안 울진군민과 동반한 고객들에게는 왕피천케이블카는 탑승료 군민할인(4000원 할인)을, 울진아쿠아리움은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진아쿠아리움에서는 물병 생채 설명회, 수달 먹이 주기 퍼포먼스, 꼬북이 맘속 특별한 선물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더불어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광장에 윷놀이, 투호, 널뛰기, 굴렁쇠 등 민속놀이 체험존을 설치 운영한다. 이정수 기자

### 포항 시청광장에서 설맞이 지역 농특산물 만나보세요

포항시는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광장에서 설맞이 지역 우수농특산물 홍보관축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사과, 배, 단감, 한과 등 제수용품 ▲시금치, 고구마, 버섯, 딸기, 꿀 등 신선제품 ▲떡국떡, 호랑이빵, 젓갈류 등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지역 특산물 시식회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매일 2회씩 진행한다.

시식회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포항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잡채와 시금치장아찌, 시금치 전, 튀김, 시금치떡까지 일차 별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다양한 도수의 증류주와 막걸리 시음도 함께 진행한다. 정창명 기자

## 울진군,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 2024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진행

울진군은 지난 2일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평생학습관에서 "2024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과 이후 진행된 나눔 활동에서는 참여자들이 연탄 400장을 나르며 온기를 전하고, 취약계층 100세대에 난방유 쿠폰을 전달했다.

더불어 여수의 향일암에서는 쌀 200포를 후원

하여 나눔 분위기에 훈훈함을 더했다.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국가적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지난 17일 예천군을 시작으로 도내 21개 시·군이 설 명절 전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울진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및 나눔 행사를 기획해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조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

장은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이웃들에게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가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울진군 곳곳에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기를 바란다"며 "울진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 영덕군, 희망2024 나눔 캠페인 180% 초과 달성

영덕군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영덕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 동안 진행된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2억7800원을 180% 초과한 5억여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 시작돼 올해 1월 말일까지 진행됐다.

캠페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성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음에도 관내 개인·마을·단체·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나눔 문화 실천을 이어가 종료 시점에는 사랑의 온도를 180도까지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이번엔 모금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 울진군, 사격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정밀리 사격장 인근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기성면 정밀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으로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설을 맞아 오전 육군3사관학교, 오후 마야정 신요양원을 방문

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 관계자 및 시설인사, 임직원들을 격려한다.

#### 경산시립도서관 '박해상 노래이야기'



경산시립도서관은 오는 17일 박해상 작가를 초빙해 도서관 강의실에서 '박해상의 노래이야기-역사 in 가요'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방송인 겸 가수인 박해상은 지난 2018년 위촉된 후 현재까지 경산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으로 2023년 '역사 in 가요'를 펴내며 작가로 등단했다.

'박해상의 노래이야기'가 주제인 만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강의할 예정이며 1장 소통을 품은 노래, 2장 고향을 품은 노래, 3장 추억을 품은 노래 4장 문화전정의 시대, 5장 통일의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박해상의 노래이야기-역사 in 가요' 초청 특강은 책으로 역사와 노래를 배우고, 박해상 작가와 소통하며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은 경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053-853-865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경은 기자



영천,故 권동식 1000만원 장학금 기탁

지난 2일 故 권동식 유족 일동이 고인의 이름으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故 권동식님은 영천시의회 권기한의원의 부친으로 지난 1월 30일 별세했다.

고인은 고경면 출신으로 생전 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해 주변의 귀감이 되었다.

유족 일동은 "바쁘신 중에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부친 장례식 후 부의금 일부를 생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강조하신 부친의 뜻을 이어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기한 의원은 앞으로 선친의 뜻을 받들어 영천의 소외되는 이웃이나 학생이 없도록 살피며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고인의 뜻이 우리 영천 지역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탁해 주신 장학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이남철 고령군수, 나눔 문화 확산 앞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고령군수 자발적 동참

이남철 고령군수가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일 이남철 군수는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독려해 고령군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남철 고령군수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상영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된 특별회비는 취약계층 물품 지원 사업, 이재민 재난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령군은 경북 지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적십자 회비 모금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나눔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위협받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적십자 회원 여러분의 봉사 정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우리 고령군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활동

을 늘 응원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도 적십자 회비 납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군민 여러분들도 주변

을 돌아볼 수 있는 봉사 정신을 갖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 영천시, 미래차 부품 전환기업 R&D사업... 지역 경제 활력소

미래모빌리티 엑스포(DIFA)에서  
지자체 최초 단일 전시관 개관

영천시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의 협력으로 진행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 R&D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R&D 지원 사업은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등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업

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 14개사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총 27.1억 원의 매출 증대와 함께 직접 고용 24명, 간접 고용 398명 등 총 42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DIFA)'에서 영천시가 ㈜화신, ㈜신영, ㈜영진, 에스아이이씨 등 9개사의 참여기업들과 함께 지자체 최초로 단일 전시관을 개관해 더욱 주목을 집중시켰는데, 약 135억 원의 구매 의향을

달성하며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가치를 입증시켰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은 물론,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구 도시철도 영천연장,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금호-대창 하이프스 IC 개통 등 굵직한 사회기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청도군, 청도반시 수고낮추기 지원사업 실시

수고는 낮게, 작업은 쉽게, 과실은 크게

청도군은 지역의 대표 임산물이자 주요 농가 소득원인 청도반시의 수고낮추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도반시 수고낮추기 사업은 감나무의 수고를 3~3.5m 이내로 낮춰 농작업의 생력화 및 생산량 조절과 더불어 과실의 증량 등으로 고품질 청도반

시생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내 청도반시 재배 농가 중 나무 수령이 많고 자라고 수고낮추기를 실시하기 어려운 고령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업 기술과 경력을 지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본 사업을 2016년 도입해 올해로 시행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감각적인정고품질의과실생산작업능력향상 및농업인의안전사고예방등다양한효과를 거두고 있어재배농가로부터 지속적인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청도반시는 전국 유일의 씨없는 감으로 비타닌C과 구연산이 풍부하며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전국 제일의 홍시로 각광 받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잦아지는 기상이변으로 영농 여건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짐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대처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개장식

고품질 고품격 성주참외만 유통  
농가경영비 절감하는 시설로 탄생

성주군은 지난 3일 성주읍 대항리 일원에서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장식에는 성주군수, 성주군의회, 도의원,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 각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공사는 2020년 4월 공모 선정된 전국 최초·최대 규모인 비상품화 농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 건립사업으로, 2022년 5월 공사 착공해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본 시설은 부지면적 1만9107㎡로, 동시 하역창 외농기차량 14대까지 확보했다.

일일 처리량 최대 500톤, 총 저장용량 1만930톤, 약취저감 및 전 시설 자동화로 모든 처리능력을 3배 이상 높였다.

또 양질의 미생물 액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토양과 환경을 살리고 농가 경영비까지 절감하는 시설로 탄생했다.

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운영할 계획이며 장비 결함 혹은 운영 미숙에 대한 혼돈 상황을 방지하고자 8월말까지 시운전팀이 배치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은 고품질 고품격 성주참외만을 유통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했으나, 노후화된 외부 노출 시설로 약취 발생 및 농가의 장시간 대기, 처리 과부하 등 개선 사항이 많았지만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를 추진함으로써 모든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년도에는 50년이 넘는 참외 재배사 이래 처음으로 조수입 6천여원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7천여원, 8천여원을 마주하는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목표로 미래성주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도재훈 기자

## 경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경산시의회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량음식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박순득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

계자들과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가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신경은 기자

### 경산, MZ세대 공무원 오픈 토크 개최

경산시는 지난 2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MZ세대 공무원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

MZ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2024~2028년)을 수립하기 위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젊은 청년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경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산시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 △경산청년지식농터 안내 및 사람도서관의 사람책 선호도 조사 △경산시에 필요한 청년정책에 대한 젊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안성렬 단장이 참여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 열린 강의를 펼쳐 젊은 공무원들의 공감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산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박태남 미래전략과장은 "오늘 오픈 토크는 틀에 박히지 않은 젊은 감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젊은 청년 공무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경은 기자

### 고령 발달장애인가족 소통간담회

고령군은 지난 1일 대가야읍 노른자 카페에서 군수님과 함께하는 고령군 발달장애인가족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고령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과 학교 교사,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해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가족 및 교사들은 '발달장애인은 유아와 학령기, 성년기에 따른 생애 전 과정에 대한 돌봄, 재가서비스, 재활, 직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 서비스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등 인구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2024년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고령군의 실속있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배영백 기자

경북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상주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는 지난 2일 상주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행복나눔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할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과 16박스를 북한이탈주민 대표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한과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개별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정착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경환 협의회장은 "남한 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주민과도 잘 통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사와 문화적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북한이탈주민 힐링 문화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김천시 건설도시과 설 맞이 장보기 나서

김천시 건설도시과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에 방문하여 장보기를 시행했다.

이 날 건설도시과 직원들은 시장을 둘러보며 김천사랑카드를 이용해 간식과 생필품을 구매하고 또 장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장보기에서는 유관기관인 '한도엔지니어링' 직원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직원들은 "역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방문해보니 음식도 다양하고 값도 저렴해 고물가 시대에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곳인가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 날 함께 장보기를 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 장보기 날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함께한 직원들은 "더 자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의성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주민 불편해소 총력

종합상황실 5개반 운영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주민들, 귀성객 불편해소 의성사랑상품권 특별행사 취약계층 위한 지원·보호



의성군이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민 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안전, 편의, 경제, 나눔)를 중심으로 '2024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64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5개반(총괄지원반, 재난상황/도로대책반, 쓰레기처리/가축방역대책반, 비상대응 및 응급진료반, 급수관리반)으로 구성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상황/도로대책반을 편성해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가축방역(AI/ASF, 전통시장, 육외광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연휴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영남제일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진료를 실시한다.

문 여는 병원·약국을 의성군 홈페이지와 SNS

에 홍보하고, 관공사의료기관·약국·경로당·다중이용시설에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작년 12월 말로 종료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고위험군 대상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고위험군)로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혈액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보호자(간병인)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의성사랑상품권 특별행사로 구매한도액(카드 30→50만원, 지류+모바일 40→5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할인율도 6%에서 10%로 확대 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주력하고,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더불어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이벤트로는 우체국(10%) 및 의성장날 쇼핑물(최대 23%)을 특별할인하고 오프라인 초청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편의분야로 주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해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마련 △공중화장실 점검 △설맞이 대청소 △교통불편 관리 △유료화 주차장 무료 개방 △연휴기간 문 여는 식당 안내 △난

수예방 및 수도물 안정적 공급 △주요관광지 사전 환경정비 등을 추진한다.

나눔분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보호 대책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 즐거운 명절을 기원하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한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900세대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각종 전염병, 안전사고, 상수도 등과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저출생 대책 TF단 출범...저출생과의 전쟁 돌입

결혼·주거·임신·출산·보육 분야별 전략사업 본격 발족

구미시는 5일 구미형 저출생 대책 마련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구미시 저출생 대책 TF단'을 설치하고 '저출생과의 전쟁'에 본격 돌입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김호섭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단 출범을 알리는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정책반인 인구청년과와 함께 △결혼·주거 △임신·출산 △보육·교육 △조직문화 등 5개 반, 20여 명의 중점 추진 부서의 과장과 팀장으로 구성된다.

TF단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

북도의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간 전략 시책 발굴과 함께 양육 진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과 결혼 지원, 완전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 경북도에 건의해 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TF단 출범을 시작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한 구미시는 정책 대상별 심층 간담회, 전직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발굴 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 '저출생과의 전쟁 출생식'을 개최한다.

또한 대신민 도민회를 통해 구미형 저출생 극복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상북도 대표 저출생 극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저출생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선봉에서 싸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장, 정책 개발을 위해 핵심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 울곡도서관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성황

어린이와 부모 관객 900명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 관람

김천시립 울곡도서관은 지난 3일 오후 첫 문화공연으로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명화와 클래식 음악 연주가 함께하는 복합예술 공연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됐다.

국내 최초 클래식 큐레이터인 조숙현 큐레이터와 연주자들로 구성된 '1m클래식앙상블'이 공연을 맡았다.

1m클래식앙상블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초청공연으로 시작해 현재는 해외 공연에 이르기까지 연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1회 첫 공연에서는 서양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신들의 탄생 이야기와 명화 속에 담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하고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클래식 연주와 함께 감상하면서 때론 긴박하고 때론 평화로운 그림 속 감정과 느낌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앙리 마티스의 '벌거숭이 임

금님'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며 유쾌하게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문화공연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예술에 대해 친필인물적인 접근이 아닌 자유롭게 독자적인 시각에서 느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어린이와 부모 관객들이 울곡홀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과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쉽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주말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이순영 도서관장은 "울곡도서관에서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 문화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식의 산실이라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하여 시민들의 문화나눔터, 어린이들의 책놀이터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의성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달 31일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누리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의성군 소재지 옥외광고업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

당명, 정당연락처, 표시기간 등 구 등 큼씨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 및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현수막 지정계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시가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지정계시대에 우선 게시해 달라

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 밖에 기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계도했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각 읍·면에 정당현수막 지정계시대를 확충하고, 계시대 관리시스템에 정당현수막계시대 메뉴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공모사업 담당 역량 강화 특강

상주시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모사업의 기획 및 프레임 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서의 세부내용 및 작성 방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상주시는 지난 2일 전 부서 공모사업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 기획 및 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공모사업 49건에 선정돼 국·도비 1218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와 선제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시장 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차령민 미래정책실장은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지방분권재정분권의 본격화에 따른 지자체 간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의성군, 설 연휴 기간 20개소 무인민원발급창구 정상 운영

의성군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총 20개소(의성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안계보건지소)다.

군청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읍·면사무소와 안계보건지소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기 정상 작동 여부, 발급유지보충, 소모품상태 파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는 창구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발급기의 위치와 발급가능한 서류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https://www.gov.kr)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각종 증명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설 연휴 동안 주민과 고향을 찾은 가족분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6일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으로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6일 오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영주 반딧불 관광택시 발대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6일 오전 남관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부남면 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영주 희망 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12.9도'



한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영주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영주시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사랑의 온도 112.9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부로 나를 가차있게, 기부로 영주를 가차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시는 지난해 보다 5300만 원이 증가한 9억8000만 원을 모금하며 당초 목표액보다 1억3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이부터 폐지를 팔아 기부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참여한 결과로 분석했다.

시민과 기업, 기관·사회단체 등이 한마음이 돼 두 달간 모은 성금 8억3700만 원 및 성품 7100만 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 청송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청송군은 지난달 26일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주차장 일원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청송군, 청송소방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방객들에게 산림 내 소각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금지 등을 홍보하고 공원 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윤병문 기자

# 문화·관광이 흐르는... 안동 K-전통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세계유산도시 위상제고 다함께 즐기고 누리는 레저·스포츠도시 조성

안동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단지 보존, 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등 정신문화와 놀이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봄의 벚꽃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여름의 수(水)페스타, 가을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의 암산얼음축제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세계적축제로 특화한다.

세계적 축제 체계를 정립해 생동감 있는 관광도시 안동 이미지를 구축한다.

안동형 MICE 지원사업(1.5억 원), 2024 MICE 홍보마케팅 사업(0.5억 원), 2024 도산권 울트라러닝 사업(1.5억 원) 등으로 연내 80건 이상의 MICE 행사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콘텐츠 제작지원(2억 원), 지역기반 사진·영상 로케이션 제작지원(2억 원)도 추진한다.

지역에 특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상 공연장(74억 원), 미디어퍼사드(22억 원)를 조성한다.

또 안동호 권역에 마리나리조트와 구 안동역 부지에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도 지속된다. 원도심·월영교 테마화 등 30개 핵심사업(211.9



안동시 문화와 관광이 흐른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억 원), 통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13개 전략사업(42.9억 원), 주변 지자체 협업 공동 홍보마케팅 등 7개 연계협력사업(24.3억 원)을 추진하여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갖춘 명품 관광거점도시 조성에 힘쓴다.

한국문화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EBS 어린이 공개방송 추진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총 12억 원)하고, 퇴계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700리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인근 8개 시군과 협력해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국단위 행사(2.9억 원)를 추진한다.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이란 비전으로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한다. 앵커사업(▲K-글로벌 클러스터 ▲K-전통 문화관광벨트) 등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한민국문

화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지·천연염색·도자기 등 공예(2.4억 원), 안동포(2.1억 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 한지는 2023년 7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선정되어 향후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세계유산도시로서, 문화유산의 보존에도 힘써 임청각복원(280억 원), 하회마을(147.5억 원) 및 그 외 문화유산(53건, 74.4억 원)을 정비하고, 도산서원·하회마을의 편의시설을 확충(6.2억 원)하여 세계인이 다시 찾는 문화유산으로 조성한다.

한편, 스포츠관광 및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어

나간다.

친수공간에 걷기 좋은 길 '맨발로'를 조성(15억 원)하고 실개천 친수공간 정비사업(17억 원)도 실시한다.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스카이프크(20억 원), 탁구전용체육관(20억 원) 조성 및 엑스트림파크 확충(10억 원)으로 레저시설을 늘리고,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성화(60.2억 원)로 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적 특성과 풍부한 수자원을 개발하고, 레저·스포츠 분야의 내실을 다지는 등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안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매력으로, 이제 '한국 속의 안동'이 아닌 '세계 속의 안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 탄소중립 선도도시 "클린예천 만들기 총력"

'함께해요 클린예천'

지속 추진 273억원 투입

예천군은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클린 예천을 위해 환경정책 분야에 2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기후 위기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무공해 전



기차 보급사업에 338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자동차 흡착 필터 등 저공해화 사업에 830여대 2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기후 위기 대응 군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

추진 중인 예누리길에 소규모 물길쉼터를 만들고, 미세먼지 신호등과 스마트에어 샤워기를 설치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건강을 챙긴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억 원의 예산으로 480여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방치된 슬레이트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설치,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 청정예천의 자랑 물 맑은 하천 조성

하천수 수질모니터링과 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예천 수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해요! 클린예천 범군민운동 지속적 추진

페이이스팩 및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클린예천 보물마차, 빈병무인 회수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캔·페트 무인 회수 로봇을 추가 설치한다. 또 25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대형폐기물 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대항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폐기물 수거 전문성을 제고한다.

특히 금년 클린상가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상가 앞 자율 청소를 유도하고, 클린예천 영농환경심사제를 도입하여 농경지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청정예천 이미지를 이어 갈 계획이다.

예천군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2050 탄소중립으로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클린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 봉화군, 설 명절 '정'과 '덤'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1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봉화군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사로 균형 공직자가 동참해 설 제수용품, 성수품 구매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보기 캠페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5일 장날인 지난 4일 억지춘양시

장에서 유관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서민경제 현장애로사항 청취와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을 펼쳤다.

7일에는 봉화상설시장에서 진행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둔화로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정이 넘치고 '정'과 '덤'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시장 활성화와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청송 "애플루언서(APPLE+인플루언서)"를 찾습니다

24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 모집

이번 2024 청송군 SNS 홍보단 '온통청송'(이하 홍보단)의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블로그 분야 10명, 유튜브 분야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개월간이다. 모집 기간은 2월 5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원방법은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원서를 작성

후 전자우편(bms123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홍보단은 청송의 정책, 관광, 축제 등을 취재해 청송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식 게시글로 채택 시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 홍보단에 대해서 표창도 주어진다.

또한 모집 홍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네티즌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윤병문 기자

## 영양읍 새마을회,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쌀 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새마을회에서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 내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할 사랑의 쌀(10kg) 50포대를 배부하는 이웃사랑을 위해 작지만 뜻깊은 나

눔 활동 행사를 가졌다.

김동환 새마을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나눔을 가졌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새마을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겸 영양읍장은 "매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새마을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읍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희망나눔을 위한 헌 수거행사, 환경실천을 위한 새마을 줌기데이 등 관내 행사와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 권윤동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생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 (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탤런트 이영범



가수 소명



탤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가수 신비



가수 골드

대구광역시일보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준비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준비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준비이런퍼터
- 여자 니어 준비이런퍼터